

중편채널 초청 특별 좌담회

# 중편 4사, 방송 신문 광고 연계판매 없다

## 광고단가 출범초기 비슷한 수준, 이후 시청률 따라 차별화

중편채널 4개사가 일제히 오는 12월 1일 공동 개국할 것을 밝혔다. 미디어 시장의 빅뱅으로 그동안 무수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편이 드디어 개국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4개사는 10월중 매체설명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콘텐츠 소개 및 광고단가와 판매방식에 대해 공개한다. 개국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KAA저널」은 지난 9월 27일 중편 4개사의 광고책임자를 초청, 콘텐츠 전략과 광고판매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 토론자 (가나다순)

- 사회\_김상훈 한국광고학회장/인하대 교수
- 박영균 채널A 마케팅본부장
- 박혁규 TV조선 광고사업본부장
- 박현수 단국대 교수
- 손병기 JTBC 광고사업본부장
-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
- 정성관 MBN AD마케팅국장



### 매체설명회 및 개국 일정

임호균 중편채널 개국이 임박해지다보니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운영방침과 광고판매 등에 대해 듣는 한편, 광고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으니 서로 이런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모시게 됐다.

김상훈 먼저 매체설명회와 개국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박혁규 TV조선은 10월 18일 오전 11시 반부터 롯데호텔에서 매체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중편 인가를 받고 준비하는 동안 12월 1일 개국 일정은 4개사의 컨센서스를 통해 결정됐고, 개국날짜에 맞춰 인력수급, 콘텐츠 제작, 방송장비 세팅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했다. TV조선 광고본부도 30명 내외로 인력을 세팅해 가고 있다. 18일 매체설명회는 TV조선의 비전,

전략, 콘텐츠, 광고판매 방침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석대상은 광고주, 광고회사, 관련 단체 등 400~500명 정도 오실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병기 JTBC는 10월 6일 오후 4시 반에 롯데호텔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연다. 쉽게 KOBACO의 에드패스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광고주와 광고인이 중심이 된 행사다. JTBC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니 광고시간대를 구입하시라는 취지다. 즉 광고시간대, 광고요금, 패키지 형태, 할인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광고시간대 구매자가 궁금해할 사항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 광고인들이 상품정보를 교환하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보면 되겠다. 허장성세를 빼고, 거품 없이 실용적으로 할 것이다.

JTBC가 개국을 12월 1일로 잡은 데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 신군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TBC가 종방된 날짜